

남원외용소방대 조동일 대원, 차량화재 초기 진압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달 28일,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남원 남성외용소방대 조동일(사진) 대원이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했다고 전했다.



조동일 대원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직원으로, 고속도로 갓길에서 트럭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순찰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화재 진압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의 잠을 잡은 상태였고 초기에 화점을 정확히 찾아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기에 차량이 전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동일 대원은 "8월 1일자로 임명된 신참이나 얼마 전 신규 임명 외용소방대 직원교육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기에 당황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서,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 합동순찰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특별차단활동 기간'을 맞아 지난 1일 학부모로 구성된 패트론팀과 함께 터미널 등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을 합동 순찰했다.

이번 순찰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음주·흡연 등 비행 청소년 선도 홍보활동을 병행하였으며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장난성 범죄예고류 유포 예방을 위해 SNS(인스타그램: @gimjipol_112_117) 및 교내 특강을 통해 강력차별됨을 적극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패트론팀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록 서장은 "모든 차안사람들에게서 청소년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화기를 맞이하여 학교폭력예방 등 특별차단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경찰, 이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을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장수소방서, 3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1일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긴급구조 임무수행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능력을 제고해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한국농업연구원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불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재난 대응 및 수습 능력을 배양해 통제단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긴급구조통제단원 및 화재진압·구급·구조대원이 모두 참여했다.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한국농업연구원 지상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가상상황을 설정해 도상훈련을 실시한 후 출동 지령에 맞춰 출동해 각 단계에 맞춰 △특정통제단 운영 △현장지휘대 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및 개인별 임무 활동 △통제단 부서별 운영 등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임실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임실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표면에 '자동차 전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한다.

설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뺐으면 달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 용하기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잠자는 악기 새 주인 찾아 주기 프로젝트

익산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악기, 기독교삼애원·이리보육원 아이들에 전달

익산시는 아동양육시설 기독교삼애원과 이리보육원 아이들이 기부 악기의 새 주인이 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시민 악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아이들은 연말까지 전문 강사들로부터 연주를 배우게 된다.

시는 추후 아이들이 실력을 갈고닦아 '시민 악기 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악기 기증 나눔 사업은 쓰던 악기를 수리·조용해 문화 소외 계층이나 문화 소외 지역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이다.

나눔 문화 확산과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며 악기 기증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잠자고 있던 바이올린과 장구, 플루트, 기타 등 15가지 악기 61대를 기부받았다. 수리·조용된 악기들은 아동양육시설 외에도 지역사회 곳곳 필요한 곳에 나눠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나해부터 시민들이 모아주신 악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기계공고-한솔제지 장항공장, 산학협력 협약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김종천)는 지난달 31일 본교 시청각실에서 한솔제지 장항공장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천 교장을 비롯해 박병식 한솔제지 공장장과 김경환 지원팀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습 및 연수 기회 제공 △산업체 전문인력 강의 지원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인력 수급계획 제공 및 우수 인재 채용 △기타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매년 3~4월 추천과 면접으로 우수 인재를 선정, 11월 정시원으로 채용하게 된다.

김종천 교장은 "군산기계공고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산실"이라며 "사람과 기술 그리고 미래 창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한솔 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 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한솔제지는 종이뿐 아니라 화학 소재



까지 최고의 기술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군산기계공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성 기자

남원소방서, 찾아가는 공감 소통관 순회교육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1일 직원 상호간 공감과 소통 및 직급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공감 소통관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공감 소통관'은 직원 소통의 중심적 역할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고충 상담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감 소통관으로 위촉된 진화수 소방행정팀장은 관내 안전센터와 구조대, 지역대를 찾아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직장내 스트레스, 현장활동 애로사항을 주제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 7일 시보를 해제 받은 신참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직접 상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내는 첫 걸음이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임실읍, 독거노인 9가구 대상 방충망 교체

임실읍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독거노인 9가구를 대상으로 방충망 교체사업을 실시했다.

더불어 살고 싶은 복지사업인 행복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와 재료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가구 등 관내 저소득층 9가구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관내 저소득 가구의 봄부터 가을까지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더위를 피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파리·모기 등 해충 출몰을 방지하는 등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원봉사로 자동방충망을 설치한 박기근씨는 "어르신들이 벌레 걱정하지 않고 문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소재실 소방서장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인 소통문화로 바뀌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9월 1일자 인사 임명장 수여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지난 1일 본부동 총장실에서 9월 1일자 직원인사 발령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병준 총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팀장들이 참석해 신규자 임용을 축하했다.

박병준 총장은 "전주교육대학교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해 전국 교육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교대의 9월 1일자 직원인사 발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보 ▲총무처 박동룡 팀장 ▲학생처 김지영 팀장
◇신규임용 ▲총무처 오재현 ▲산학협력단 강다현
/장은성기자



남원경찰서, 여성 범죄예방 위한 시설물 설치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난달 31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경찰예산 5,000만원(자치경찰사무)을 투입해 울치마을 일대에 범죄예방 시설물(도장 및 솔라리프, 안심반사경, 노면표시 디자인 솔라리프 등)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어둡고 취약한 골목길이 한층 밝아져 여성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체감 치안 안전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경찰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회성이 아닌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 등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허상석 회장을 비롯한 무주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8명과 경찰서장, 각 실(과)장 등이 참석하여 경찰서 중점 추진 업무를 일리고 경찰발전협의회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허상석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무주군의 치안 안정을 위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경 협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 반딧불축제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되는 제27회 반딧불축제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서장을 비롯한 실·과장과 주계파출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및 연이은 행사 진행으로 다중 운집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각 부서별 대책을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상호협력한 토론행식으로 진행되었다.

남기재 서장은 다중혼잡상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범죄 등이 특히 우려되므로 각 구역별 책임근무를 반드시 지정하고 행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근무수행을 당부하는 한편,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하여 우발상황 대비토록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3년 11월 28일 (수요일)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 2023년 11월 28일 (수요일)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